

## 30~31일 P4G 서울정상회의...문 대통령 정상급 60여명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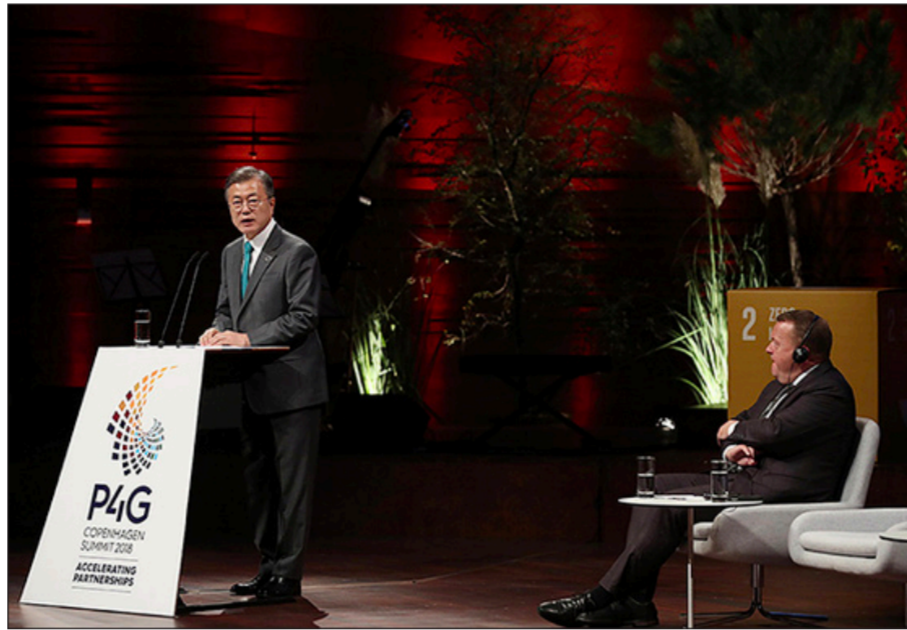
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덴마크와 '전력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영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P4G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이튿날 정상토론회의 의장으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신산업과 신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유사 입장과 연대를 강화하고,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할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이날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칼럼]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많다

지금이야말로 안 되는 말이지만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라 하여 죽어도 시집간 그 집 주인이 되라는 말이 있었다. 시집 보낸 친정 부모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오나 허며 받아주었다가 혹여 기대가 되면 못 견디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

또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봉사 3년이라는 말도 있었다. 보고도 안 본것이고 듣고도 안 들은 것이며, 할 말이 있어도 참으라는 말인데 요즘 그러면 어찌될까 아마도 죽어서서 112순찰차가 달려올 것이다.

그만큼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어 한 집안의 안방머미가 되라는 바인인데 중요한 건 시어미가 온갖 트집 잡아 며느리를 팔 시하는 건 고사하고 일부 못된 시어미는 어릴 적 당신이 당한 한풀이를 한답시고 폭력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럴 때 "엄니 때리지 말라"며 슬그머니 미소를 흘리는 시누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부지깅이 보다 큰 동동이를 전해준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고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과정을 무시하고 32번째나 국무위원을 임명하자 야당들은 그 책임과 무능함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민심임을 모르고 울대에 피대를 울리며 침을 튀긴다.

심탁수 하부정이라 했던가. 뒷물이 이러니 아랫물도 보은인사가 당연한 듯 선거 때 들러가면 참모들을 한 자리씩 주는 훈훈한(?)인심을 흔히 볼 수 있다.

요직! 누군가는 앉아야 할 자리. 누가 앉으면 어떻게 아무나 앉으면 어떤가. 하지만 가왕이면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자가 그럴 때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 활성화는 곧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아니라면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뜻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후 10시 20분까지 10시간 동안 성남시청 시장실과 채용 관련 부서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018년 11월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수십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 내 자료 정리원으로 근무한 것이 '부정 채용'과 관련되는지 의혹을 파헤칠 목적이었다.

과연 성남 뿐일까. 성남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은인사가 이뤄진 경기도 안산은 남의 일인양 조종하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처음부터 공채라는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명됐으나 유희섭 안산시장과 피 터지는 싸움 끝에 정리됐고 뒤이어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을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산문화재단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래저래 조직에는 시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이미 공채라는 제도가 신뢰를 잃었으니 어떤 비보가 들려리 설 것인가. 인재를 구할 통로마저 막아버린 안산시, 이번에는 2013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중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김철민 국회의원의 전 지역구에서인 서영삼 씨를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난 5월 17일 임명했다. 물론 합법적인 공개채용이다.

시민단체와 야당 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성도의 목소리가 높다. "전과자 안산도시공사 사장임명, 안산시장 답하라" 말한다. 하지만 이미 형기를 마친 서영삼 시장 입장에서선 엄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민이 인정할만한 기본적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과거의 범죄경력 문제를 삼았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 후보 평가기준, 점수 공개 등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덕성과 전문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낙산 타고 앉은 인물들은 검증된 자들이었다. 국민의원 안산시의원 일동은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경악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범죄자라며 과거 범죄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장의 시장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포도 놓았다. 시민이 뽑아 준 의결권을 특정 정당의 무기로 삼아 휘둘렀다는 으름장이다.

필자는 서영삼 사장을 두둔할 이유도 천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행한 수조차 없이 많은 인사비리와 문제점을 방관하고 짚고 넘어 가야 할 일들에 침묵했다가 뒷북치는 소리에 할 말이 없을 뿐이다.

누가 누구 탓하는가. 인사비리가 때리는 시어미라면 멀거나 보고만 있다가 뜬금없이 말리는 시누이에 불과하다.

그동안 뭘 했는가. 72만 도시가 66만이 되고 도심 한복판에 시민도 모르는 남골당이 안치 직전까지 왔는데도 입 다물고 있었다.

도심의 동맥이나 디딤없는 중앙대로변의 녹지가 법적 승수를 이유로 당초 방침과는 달리 대기업을 편익을 제공할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느 단체도 말리거나 문제 삼는 일이 없었다.

수십 억짜리 공공일이 사라져도 도서관 지리가 아파트로 변해도, 고도 제한이 어느 날 풀리고 하천변의 용도가 바뀌어도 조용했던 시민단체와 야당들이었다.

대부도 편선 단지가 특혜를 입어도, 4급 비서관이 황용 접대를 받아 언론에 보도되자 외려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는 안산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

박영갑칼럼

## 한국도 마스크 벗는다..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 김부겸 총리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모임제한 제외"

코로나19 백신접종 1차 접종자는 다음달부터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을 받지 않고 오는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을 효과로 체감하시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오늘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1회 접종을 마친 분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면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서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면서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저함 없이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여정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하루 뒤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800곳에서 시작된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74세 513만9천513명과 중증 호흡기질환자 7978명 등 총 514만7491명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었고, 유희업소, 목욕



탕,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현장상황에 맞춰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654명→646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김수흥 의원, “전북패싱 철도망 강력 규탄한다!”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黃 2차관 방문 강력 항의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이 요청한 7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 1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전북패싱 논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이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연구원 개회한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163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이 가운데 51개 사업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7개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그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사업' 단 1건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전남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어서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의원은 24일 오전 8시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전북패싱 강력 규탄한다!!',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즉각 수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나서



게 됐다.

'균형발전 국회의원'을 자처하는 김수흥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의 정활동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가 이번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낙후된 전북을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180만 전북도민들도 큰 소외감에 빠져 상심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시간여 동안의 시위를 끝내고 황성규 국토부 2차관

을 방문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전북을 외면한다면 극심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직면하게 돼 180만 전북도민의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앞장서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면서 추후 전북 정치권과 시민들도 동참할 뜻을 비치는 등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낙후된 전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북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북권 사업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보통살인죄유기죄 적용으로 처벌 강화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



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면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 화성시의회 김효상 의원, 수원하수처리장 문제해결에 나서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상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수원하수처리장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열고 관계공무원들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상 의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종근 의원과 화성시 하수과, 수질관리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및 수원시 하수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수원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520,000㎥/일이며, 슬러지처리시설의 시설규모는 432톤/일로,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김효상 의원은 우기시 하수유입량 부하로 인해 황구지천에 매설된 차집관로가 범람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으며, 슬러지 처리·건조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대책을 요구하였다.

수원시 이종근 의원 및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진행되는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발생시설의 설비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차집관로 범람으로 인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나,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김효상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우기시 화성시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수원하수처리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하였다.

김남주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 용산구, 세계인의 힐링데이 비대면 행사 개최

## 코로나19로 지친 내·외국인 격려코자



서울 용산구가 26일 구청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의 힐링데이' 비대면 행사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내·외국인들을 격려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행사시간은 오후 2시~오후 4시, 3부로 나눠 진행된다. 모든 영상은 방역 수칙을 준수, 행사 이전에 촬영했다.

1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모범 내외국인 주민 표창장 수여, 구청장 인사말, 축하공연 순이다. 구는 제14주년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맞아 지난 2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모범 내·외국인 16명(개인15, 단체1)에 대한 표창을 했다.

2부는 코로나시대 구강관리, 심리상담 세미나(색채미술치료), 현대 한방을 통한 척추·관절 치료, 아프로팝(Afro-pop) 댄스 배우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강요선 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 미술심리상담사, 라이몬트 로이어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이 함께한다.

3부는 다국적 요리교실이다. 멕시코·다진 소고기 타코·초콜렛 살사, 러시아·비프스트로가노프(소고기리사+매밀밥)·오크리쉬카(냉국), 일본·니쿠자카(고기요리)·마키시시(김밥

이초밥)·이나리시시(유부초밥), 터키·트리플치즈스테이크·트윈피데(터키식 피자) 요리 과정을 선뎠다.

이태원 맛집 '트로이카', '케르반레스토랑' 등이 함께했다.

구 관계자는 "2021년 1분기 기준 용산구 전체의 인구 24만3336명의 5.9%인 1만4323명이 등록 외국인"이라며 "이들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9년 자체 외국인 서포터즈단(단장 시안 오스투르크·한국명 오시난)을 구성하기도 했다. 단원은 21명이며 외국인 정책개발과 자문, 행정만족도 조사, 자원봉사 활동,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각종 문화 교류 등에 힘을 보탠다.

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생활정보지도도 새롭게 만든다.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공모 사업 일환이다. 청년인턴 18명을 활용, 외국인 방문객에게 필요한 숙박·상점·명소 등 정보를 수집·가공하고 구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이를 영문으로 공개한다.

성장형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국내를 대표하는 다국적·다문화 도시로 외국인과의 공존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본격화

## 서울시 최초 한강조망 생활체육관 탄생, 주민의견 수렴 통한 최고의 체육시설로 우뚝

마포구는 한강을 바라보며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 한강조망 생활체육관으로 탄생할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7일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설계공모 당선 업체인 건축사사무소 레드박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설계 및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어 지역주민과 관련부서와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그동안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가졌던 주민의 여러 궁금증을 해결해주고자 한다.

주민편익시설은 대지 4119㎡, 연면적 5009㎡ 규모로, 주민 선호도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상 2층 수영장을 비롯, 지상 4층 및 옥상까지 목욕탕, 종합체육관, 헬스장, 풋살장 등의 시설을 사업비 302억원을 투입해 구축하게 된다.

특히 사업부지가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이용 주민이 한강을 바라보며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강조망 생활체육 주민편익시설이 될 전망이다.

지역 내 부족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수요 충족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건립은 지난 2014년 11월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완료, 2016년 11월 중앙투자 심사 통과, 2017년 12월 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2018~2019년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특별위원회 개최, 2020년 중앙투자 재심사 통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계획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다.

구는 오는 2022년 1월 공사 착공 및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서울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발전소인 당진리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해 지하화하고, 지상은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조상순/기자

# 강동구, 코로나 민생안정 중점 추정 예산 502억 확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구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 대책 중점 편성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2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에서 18일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2억 원(6.1%) 늘어난 8천 732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분야 및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편성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및 폐업소상공인 지원 20억 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 사업 12억 원,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행복학교 등 1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 원, 장애인활동 서비스 지원 38억 원,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24억 원,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구조물 정비 11억 원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등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라며 "주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 속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 송파구,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미리 준비한다 · · · 종합대책 돌입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 TF를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 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 SNS매체(송파블로그, 송파트위터, 페이스북)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홍보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1,200여명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 행복물타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요 노출지역은 집중순찰을 실시해 열염물 제거 등 응급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12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일상 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냉방시설이 구비된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218여 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단,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58개소의 일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160개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를 위해 오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2시~5시)를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아울러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으로 낮 기온이 33℃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평균 5대의 살수차가 도로 도면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 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가



스충전소 외 20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와 도심 열섬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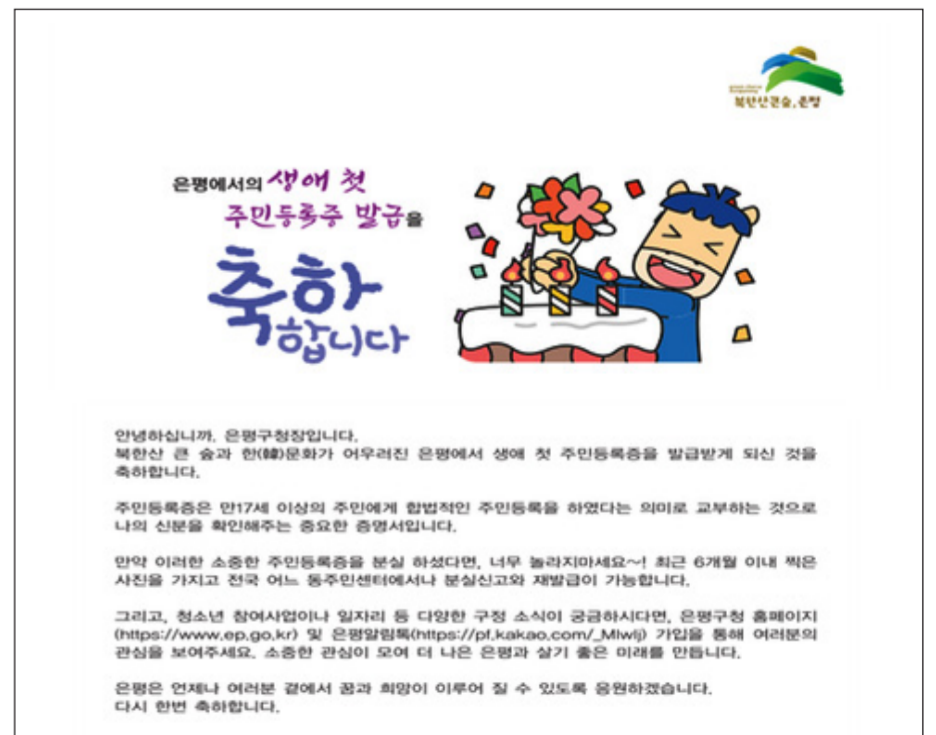
정동희/기자

# 은평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발급

은평구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17세이상 청소년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전달 시 축하 메시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함께 교부한다. 이번엔 전달하는 축하카드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주민등록증의 의미와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은평구를 상징하는 과발이를 새롭게 해석한 은평구 SNS과발이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축하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축하 의미 뿐만 아니라 구정 소식을 알리는 은평알림톡과 구정 활동에 대한 참여방법도 있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청소년들의 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홍보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신규 주민등록증 축하카드에 관내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라면 은평구 어느 동 주민등록증 수령시 함께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은평에서의 시작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를 전달하며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축하카드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조상순/기자

# 서대문구, 5G·AI기반 응급의료서비스 드디어 시작된다

### 서울 서북3구(서대문·마포·은평)에서 5월 27일 자정부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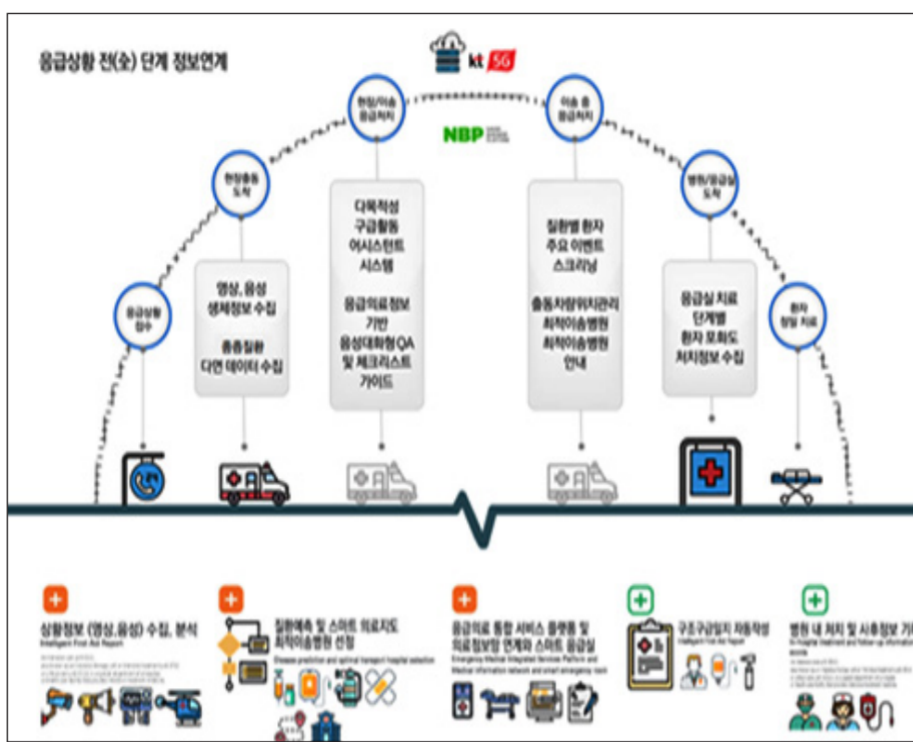
서대문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달 27일 자정부터 5세대 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서울 서북3구(서대문·마포·은평)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시 전날인 이달 26일 오후 2시에는 시스템 개발을 주관한 연세의료원에서 관계 기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포식을 열고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서북3구와 고양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12월까지 실증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에는 서울 서북3구(서대문, 마포, 은평), 개발사업단인 연세의료원, 응급의료기관 5곳(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은평성구성심병원, 은평성모병원, 세란병원), 실증 대상인 소방서 3곳(서대문소방서, 마포소방서, 은평소방서)이 참여했다.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음성, 영상, 생체신호)를 5G망을 통해 전송하면 통합플랫폼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중증도와 증상별 치료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구급차 내 구급대원에 게 표준 응급처치방안과 병원 이송 최적 경로를 제시하고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에게는 구급차 내 상황을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응급

환자 도착 전에 최적의 치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 환자 가운데 중증외상 환자의 20.2%,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36.1%, 뇌졸중 환자의 27.5%가 최초 도착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는 구급 단계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 적정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문제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3년(2019~2021년)간 180억 원을 투자해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돌입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이 협력 추진해 왔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와 예술의 도시 성북 '문화도시'로 비상

### 유튜브 생중계, 주민, 예술가 등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비전 공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문화도시 성북'으로 비상하고 있다.

첫 단추로 20일 주민, 예술가와 함께 하는 '문화도시 성북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함으로써 주민, 지역예술가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해 맞손을 잡아온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 문화예술네트워크(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미술협회 등 지역예술인 협회,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성북의 도시자원과 문화예술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현재 성북의 문화도대와 환경을 살펴보고 문화도시 성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에는 '문화도시 성북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튿날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청의 주요 부서

장, 성북문화재단 등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문화도시: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발전의 가치'라는 주제로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성북구는 문화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전반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실무부서 중심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구의 도시 행정이 문화적 도시를 위한 정책과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6월 1일에는 '문화도시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장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 행정이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에는 두 번째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문화도시 성북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지역사회와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튿날 성북구청장은 "성북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데 풍부한 자원과 거버넌스의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면

서 "이번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성북의 역할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 인천시, "공기업 및 우수한 글로벌기업, 유튜브에서 만나요~!"

### 5.25.~5.27. 유튜브(인크루트)에서 공기업-글로벌기업 설명회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내 어려운 고용상황을 활성화하고자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우수 공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채용계획과 인재상을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시는 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하대, 인천대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인천 온택트 공기업 및 글로벌기업 설명회'가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흘간 유튜브(인크루트)에서 송출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에는 기업설명회와 토크쇼라는 새로운 형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단조로울 수 있는 기업설명회에 재미와 웃음을 더했다.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온라인에서 기업별 소개 영상과 동시시간에 기업담당자와 채팅창 또는 별도 이메일 문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기업과 우수한 글로벌기업 24개가 참여, 3일(5.25.~5.27.) 동안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취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기업은 공기업 10개사와 글로벌기업 14개이며, 참여를 원하는 인천시민 및 취업준비생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보면서 취업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특히 행사 첫날인 25일 오전 10시~12시까지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를 운영하는 '제이콥'이 인천의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각 기업의 회사소개, 인재상, 채용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행사기간 동안 송출하며, 기업별 기업소개 영상 송출 시간은 인천시 홈페이지, 행사포스터 QR코드 및 유튜브(인크루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변화하는 채용시장 흐름에 맞춰 지역의 공기업 및 글로벌 우수기업체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한다"며 "기업에게는 능력있는 인천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가진 우수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남봉/기자

# 이강호 남동구청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SNS 챌린지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방류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참여자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임병택 시흥시장의 지령으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흥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지목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고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해양이 수산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은/기자

# 부평구, 약사회와 주민 마음건강 위한 '생명사랑 안심약국' 업무협약 체결

부평구보건소는 최근 부평구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인천시부평구약사회와 '생명사랑 안심약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평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접점이 있고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약국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안심약국'을 선정해 지역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 시도자들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 종사자들은 지역 내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 중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위험을 보이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거나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전문적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구축한

다는 계획이다.

최은경 부평구약사회 회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 중 우울감을 보이는 이들이 종종 발견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평지역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약국들의 참여가 자살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현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약국은 이용자의 폭이 넓고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높다"며 "특히 약국 종사자는 보건인력으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 자살예방사업의 최적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사랑 안심약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정신보건기관을 연결하는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약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 내 생명사랑 안심약국은 성심약국, 소망약국, 송화약국, 서울당은누리약국, 은행약국, 을지약국, 최병원약국, 한솔약국, 행복한은누리약

국, 희망약국 등 10곳이 활동 중으로 구는 연중 신규 신청을 받아 생명사랑 안심약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순희/기자

#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 착수

인천 동구는 미추홀구와 서구에서 동구로 진입하는 진입로인 송림고가교 '동구의 진입로'라는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송

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노후화 및 도로가 변색된 송림고가

교 하부공간에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에 CPTD 야간조명을 설치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시·구비를 포함한 272백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인만큼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8월 착공을 목표로 시공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진입 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외적인 동구 이미지를 향상 시키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주

민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유주/기자

# 사망사고 위험현장 2만4천개소 불시에 안전점검했다

## 추락, 끼임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집중 점검, '패트를 현장점검' 지속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2만4천여 개 사업장을 불시에 안전점검했다.

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패트를 현장점검」으로 올해 4월까지 사망사고 위험요인 25,802건을 시정조치했다.

이후 공단은 사업장의 위험 개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했으며, 점검 거부나 개선 미이행 등 위험을 방지하는 917개소(4월 말 기준)에 대해 노동부 감독을 요청했다. 일부 사업장에는 위험작업 중지나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등이 이뤄졌다.

건설업의 경우 16,853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였으며, 이 중 7,951개 현장에 대하여 17,700건의 위험요인을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으로는 계단, 개구부 및 비계 등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82.8%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7,173개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3,937개 사업장에

대하여 8,102건의 위험요인을 지적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파쇄기 등의 위험설비에 방호덮개, 울 및 방호장치 등 미설치와 같은 끼임위험(36.3%)이 가장 많았으며, 설비 상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안전조치 불량 등 추락위험(23.1%)이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패트를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올해는 점검 횟수를 작년보다 늘리고(6만 → 7만 회), 패트를 전용 차량을 일선기관에 확대 배치(108대 → 404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했으며, 6월에도 불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일터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공단은 패트를 현장점검을 강화



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아산시,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 위한 단속 추진



아산시는 2021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추진한 합동 단속에 이어 2021년 12월까지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한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해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

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재환 아산시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아산페이 720억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를 출시했다"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동해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밤샘주차) 특별단속...24건 적발

###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동해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그동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의 위반행위(관내8, 관외16)를 적발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



렸고, 관할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운

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밤샘주차 위반 등)에 대하여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동원/기자

# 익산시, 안전사고 예방 '도로구조물' 점검

### 2억5천만원 투입, 교량·지하차도 등 67곳 점검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해 교량·지하차도 등 67곳의 도로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위험요인·기능 저하·관리상태 등을 검사·평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내구연한을 증진 시킬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육안조사 위주로 하는 정기점검과 면밀한 외관 조사를 통한 정밀점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송학육교·송학교·용동교·선교·석방육교·와리교 등은 정밀안전점검을, 목천육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는 모현대교와 중앙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량은 도로구조물 중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다"며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할 경

우 신속하게 보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태백시, 상반기 권역별 합동 변호판 영치 단속 실시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태백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권역별 합동 변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합동 변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태백시는 정선·영월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영치 예고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은 즉시 변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제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말 기준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은 2,783건 2억 4천 8백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783건, 7억 6천만원에 달한다.

최만식/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 해안거닐길사업 소동천 인도교 현장점검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해안거닐길사업 소동천 인도교 현장 방문하여 공사마무리 일정을 챙기고,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장 주변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거제시의회 김두호, 노재하, 안순자 의원도 함께 했다.

해안거닐길 사업은 2018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으로 모두 102억 원을 들여 추진해 왔으며, 2020년에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세포항에서 옥화마을까지 6km 구간에 장애물 없는 탐방로가 조성된다.

전체 5개 코스 8.7km 중 육림해상전망대를 포함한 3개 코스는 완공하여 해안 탐방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동천과 소노갑 인도교는 마무리 중인 2개 코스 중에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변광용 시장은 소동천 인도교가 설치되는 구간과 기존 수변공원 주변을 꼼꼼히 살펴면서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 등 보행약자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4일 지세포항에서 개최되는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환경정비와



건설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동천과 소노갑 구간 인도교가 완공되면 일운면 망치~구조라~지세

포항~옥화마을~장승포 윤계공원까지의 해안거닐길 전체 구간이 연결되어 거제 쪽빛바다와 함께 천혜의 비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명품 산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 의왕시, 아동참여위원회 개최

### 2021 신규 위원 위촉 및 올해 4번째 정기회의 열려



의왕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4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아동참여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올해 추가로 모집한 14명의 신규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다짐문 선서,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42명의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4대권리 중 참여권을 보장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중 아동의 참여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아동 참여기구로 그동안 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나 이번에는 신규 위원 위촉과 더불어 위원장 선출, 2021년 활동분야 선정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아동인권 옹호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 아동권리교육 교재개발 연구와 아동권리주간행사 아동축제 기획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아동관련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왕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의왕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자치기구로 아동들의 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정책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종균/기자

# 광명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시민 큰 호응 받아

### 비대면·소규모 권역별 대면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제공

광명시가 지난 5월 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권역별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 제9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서일동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어린이날기념행사 추진단, 광명시청소년재단 TF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총 평가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명시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한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관내 14개 기관에서 권역별로 참여했고, 42개 단체에서 부스활동에 참여했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사전현장점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기존의 틀을 깨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행사와 소규모 권역별 대면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부새마을금고 등 20여개 후원단체는 6만6965개 9천여만 원의 물품을 후원해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가 됐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3만1543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대면행사인 7개 권역별 체험마당, 가족행복사전진, 뮤지컬 ‘에스메의 여름’ 관람 등에 1만5776명이 참여했고, 비대면행사인 기념식, 동아리공연, 트로트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및 전시회, 율동챌린지, 사진콘테스트, 온라인 가족요리체험에 1만5767명이 참여했다.

전순희/기자



# 파주시 · 롯데아울렛, 청년사업가 공동지원 MOU체결



파주시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이 지난 21일 청년사업가 공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청년사업가 공동지원 사업은 판매장소 확보와 상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협약자로 참석한 최중환 파주시장은 홍보와 모집, 행정사항 지원을 약속했고 박상욱 롯데아울렛 점장은 판매장소 제공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중환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파주시와 롯데아울렛의 노력이 청년들에게 좋은 결실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으며 박상욱 점장은 “파주시와 청년들을 위해 공헌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주말 평균 4만 명이 찾는 롯데아울렛 파주점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과발빵을 판매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 청년은 “취업과 사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파주시와 롯데아울렛이 제공한 이번 기회가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청년들 모두 각자가 만든 상품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17일부터 ‘파주청년마켓’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파주점에서 열리는 파주청년마켓은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신청하거나 도시재생과 상권재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 화성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 매향리 갯벌 정화활동, SNS '특친소' 캠페인 벌여!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은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1992년 유엔 158개 회원국 대표들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산업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회원들과 함께 매향리 갯벌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해양정화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우리 동네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다양한 동식물을 사진에 담아 '#화성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의날 #5월22일 #특친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는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참여를 제안했다.

'특친소' 행사에 참여한 홍성규 화

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마당에 있는 동식물들을 살펴봤다. 최근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 오랜만에 지렁이도 나와있었다"며 "원래는 이름도 찾아봐야 하는데, 늘 보는 식물들도 이름은 모르고 있어 좀 부끄러웠다. 무심결에 매일 지나다니는 우리 마당에도 다양하고 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롭게 개관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라남도 목포 소재)에서 '2021년 생물다양성의 날(습지·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주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선정 주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자연이 답,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로 선정됐다.

김남주/기자

# 안산시, 수산자원 회복 위한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안산시는 급감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 해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7억 원(도비 7천만 원, 시비 6억3천만 원)을 투입해 수산종자 6종(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대하, 꽃게, 전복)을 안산시 해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는 해면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자원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풍요로운 어장이 만들어지고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연안에 방류하는 수산종자들은 유전자 검사와 질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종자로,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4월 점농어(26만5천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에는 꽃게(40만 마리) 7월 넙치(41만 마리), 대하(1천126만 마리), 조피볼락(31만 마리), 11월 전복(5만6천 마리)을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과는 별도로 11월경 소라 5천kg과 해삼 1만6천700여 마리도 추가로 방류해 풍요로운 연안 해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최정부/기자



# GH, 비대면 'GH 혁신비전 콘서트' 개최

GH(사장 이현욱)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도시혁신 구상들을 경기도민과 공유하고자 27일 『GH 혁신 비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주책 홍보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GH 도시혁신 프로젝트 중 5가지 주요과제(△GH 기본주책 △물류터널 △건설행사공공, 공정임찰 △공정상사 △공유도시)를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GH는 비전 콘서트에 앞서 5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영상을 21~25일에 걸쳐 유튜브 채널 GH 굿홈TV에 시리즈로 공개한다. 영상에 대한 댓글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27일 본 콘서트에서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과제 담당자 6인 등 1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구체적인 토론내용은 6월 초 GH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현욱 GH 사장은 “이번 콘서트는 기존 개발사업의 틀을 벗어나 혁신을 통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그동안의 GH 혁신성과를 점검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GH가 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협업기관장들과 무단투기 쓰레기 분리 작업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시 협업 기관 기관장들이 24일 오전, 팔달구 매산동 상가 지역에서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날 재활용쓰레기 분리 작업에는 백운석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위원,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주욱 국제교류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모든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는 등 지속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 의정부시,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실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검진으로 구강건강을 지키세요!**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사업 장소
2021년 6월 ~ 11월	경기도 내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특수학교 포함) 경기도 내 만 10~11세 (2010~2011년)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 학교 밖 청소년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주소 및 연명 확인 후 참여 가능)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 * 학교안내로 및 인터넷이 앱에서 확인가능 * 시군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 가능 * 치과예약 필수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2020년 치과주치의 검진 대상에서 2021년 초등학교 4~5학년 검진

**서비스 비용** 개인 비용 없음 (1인/4만원 경기도 및 시군 지원) \*단, 사정(학업)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지원은 보호자가 부담

**서비스 제공 순서** ※ 전화예약 필수 : 사전 예약 없이 치과방문 시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인터넷이 앱 다운 받으셨나요?**

치과방문 전 학생 확인!

1. 인터넷이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폰(스마트폰), 아이폰(iOS)에 '인터넷이 앱' 검색 다운로드 / (QR코드 스캔)
2. 로그인: 앱 - SNS(구글/카카오/네이버/메이소크) 계정 로그인 - 학생인증(지역/학교/성명)
3. 사업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 본인표 작성, 온라인 구강보건교육(5분 소요) 이수
4. 치과예약: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처로 원하는 치과를 선택하여 전화 예약  
※ 전화예약 필수 : 사전 예약 없이 치과방문 시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검진 후: 결과통보서 확인 및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항목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 플러크 등 구강위생검사(PH/Fluorid)	문진 및 기본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 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구강위생관리 • 불소도포 • 불소이용법	문진 및 기본구강검사
예방진료	필수 •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제공 • 치아충치예방, 단순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미실시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교육, 본인표 작성 및 결과통보서 확인 • 치과방문 (가까운 치과 검색 가능)	

※ 전화예약 필수 : 사전 예약 없이 치과방문 시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 의 | 경기도 치과주치의 Q&A 센터(경기도의료원) ☎031250-9895-6 | 상용시간 | 월~금 9:00~17:00 점심시간 (12:30~13:30)

# 부천시, 문화다양성 배달 갑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매달 20일 앞뒤로 20x20 문화배달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에 마련한 문화배달은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부천 문화다양성 주간'이다.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5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주간은 '저마다 존중받는 문화다양성, 함께 다다른 인권' 주제 아래 온라인 공간 (facebook.com/DADALEUM2021)과 현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문화다양성 사업은 그간 국가 지원에서 재단 자립 사업으로 확장해 전국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성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 국내 이주 노동자 1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 상영, 장애인 차별을 주제로 한 낭독극 등 10여 개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부천시민모임 '다다름'과 공동 주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도시사업부으로 할 수 있다.

재단은 오는 6월 20x20 문화배달로 '판타스틱 씨네 클래스 : 비평적 영화 읽기'를 영화평론가 정지혜 씨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영화 감상을 통해 사회를 통찰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전문가와 함께 배워볼 수 있다.

한편 200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재단은 20년간 ▲부천 문화다양성 사업 우수 기관 문체부 장관상 표창 ▲국가 지정 제1호 문화도시 선정 기여 ▲공연시존제 최초 도입 ▲경기 최초 전문예술법인 지정 ▲경기 최초 어린이 상설 공연장 개관 ▲꿈의 오케스트라 최우수기관 ▲경기 최초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부천 특화 문화예술교육 문체부 장관상 수상 ▲100년 문화비전 발표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전순희기자



의정부시보건소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 및 만 10~11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 기관은 관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68개소)이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구강검진(위생 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 ·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예방진료(불소도포 등)이며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치아 홈 메우

기,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까지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인터넷이) 다운, 구강검진 문진표 작성,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이수, 치과 선택, 전화 예약(필수) 후 방문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 김포시 고촌읍, GTX-D 원안사수에 읍민 10,445명 서명 앞장서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에 반발하여 진행된 김포시민 'GTX-D 원안사수, 5호선 김포연장' 서명운동에 고촌읍민 10,445명이 앞장서 참여했다.

고촌읍은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발열체크 등과 함께 서명 참여를 유도했으며, 또한 주민자치회 및 남녀새마을지도자회 등 유관단체에서는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역사에서 서명운동 및 홍보에 앞장섰다.

무엇보다도 고촌읍이장단협의회

각 마을 이장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집마다 방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9,591명의 서명을 받아내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잇따르며 2년 새 유입인구가 2만 명을 훌쩍 넘긴 만큼, 고촌에 새롭게 터를 잡은 읍민들의 'GTX-D 원안 관철' 및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열망이 크다. 고촌읍은 10,455명 주민의 뜻을 모아 21일 서명부 제출을 완료 하였으며, 국토부의 확정고시가 있을 때 까지 GTX-D 노선 원안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 죽전역 에일린의 뜰

# 포항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특구 선정

### 앞으로도 배터리소재기업과의 협업으로 배터리 선도도시 도약

포항시는 지난 21일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성과 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포항 배터리·대구 스마트헬스·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3개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7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일원(556,694.22㎡, 17만평)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포항시는 배터리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 포스코케미칼의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건립, 에코프로비엠 등 에코프로 6개 자회사의 양극재 생산공장 건립 등의 투자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유망산업인 배터리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실증연구개발 수행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할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규제자유특구 내 건립하는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이차전지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인프라이며, 이곳을 배터리 산업 허브로 육성해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의 마중물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포항시는 국가 전기차 사용자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배터리 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참여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쇠퇴를 이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긴



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차전지 분야 기술개발, 기술실증, 기업육성의 전주기적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포항을 우리나라의 배터리 메카도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배터리소재기업인 포스코케

미칼과 에코프로, GS건설 등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통해 포항의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 배터리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 2020 경상북도 시군종합평가 김천시 우수상 수상

### 민선 7기 축적된 역량으로 역대최고 결실 거뒀



김천시는 5월 18일 경상북도에 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과 포상금 1천만원 등을 수상했다.

이번 시군평가는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성과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 5개 분야 85개 지표와, 경상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 7개 분야 10개 지표의 성과에 대해 상호검증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김천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투자유치 등 도정역점시책 대부분의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

으며,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도 일반행정, 보건위생, 농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응, 문화가족 분야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충섭 시장은 "시군평가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평가이다.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이고,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공무원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고, 정부 평가 기준에 맞는 행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경주시, 경상북도 시·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 지방세 징수율, 제도개선 제안, 특수시책, 발표대회 입상 등 높은 점수로 최우수기관 선정

경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 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5개 항목과 지난해에 추진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지방세 징수율 및 증감액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제도개선 제안 채택과 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도입 운영 등 특수시책, 연찬회 발표대회 입상 및 조세심판원 승소 등에 따른 가점이 부여됐다.

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전년 대비 228억원이 증가한 3950억 원을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을 위해 도내 가장 큰 규모인 42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정운영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정 선진화와 더 나은 세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반식기자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대구시 12개소 선정!

### 특정질환에서 우수한 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



대구시는 특정질환과 진료과목에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제4기 1차년도(2021~2023) 전문병원에 대구시내 의료기관 12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제4기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으로는 ▲척추 분야에 '보광병원' '참조은병원' '우리들병원' ▲관절과 수지접합 2개 분야에 '더불어병원' ▲노혈관 분야에 '굿모닝병원' ▲대장항문 분야에 '구병원' ▲화상 분야에 '푸른병원' ▲한방적추 분야에 '대구자생한방병원' ▲안과 분야에 '제일안과병원' '누네안과병원' ▲산부인과 분야에는 '효성병원'이 지정됐다.

금년도 지정된 전문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병원 지정을 위

한 투자비용, 의료질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질환별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선정한다"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에 시민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8개 의료기관이 신청해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 7개 지정기준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현장 조사해 전국에 101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상북도 동해연안, 이상해황 대비 양식 생물 관리 철저 당부

### 경북도, 실시간 수층별 관측망으로 수산재해 피해 철저 대비

경상북도 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14일 ~ 20일까지 경북 동해 연안의 울진, 영덕 연안에 발생되었던 냉수대 주의보가 4월 20일에 해제된 이후 남풍, 북풍 계열의 바람 방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수온 급변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양식 생물의 STRESS로 작용됨에 따라 관내 양식업체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냉수대는 보통 5~7월에 발생했으나 올해는 1개월 일찍 냉수대가 조기에 출현하는 등 향후 냉수대의 잦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올해 이상해황 관련 대비가 철저히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표층 15~16℃, 20m 수층 10℃이하, 40m 수층 5℃이하의 수온이 실시간 관측되어 표·저층간 수온 편차가 10℃정도로 바람 방향의 전환에 따라 수온변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해황 발생으로 인해 어류는 강한 스트레스(1℃수온 변동시 5배의 생리적 충격)를 받아 질병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고 심하면 폐사할 수 있는데 현재 경북 도내 해면 어류 양식장 91개소에서 20백만 마리 정도가 양식되어지고 있어 사육 환경 변화에 맞게 사료량 조절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선박 예찰을 통한 해양환경 관측, 실시간 수층별 수온 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에 따라 문자서비스 및 경상북도 수온 관측 모니터링 앱을 활용하여 수산재해(냉수대 등 이상해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지역의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권기수 관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해황 등 수산재해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양식어장에서는 수산재해 발생 전 미리 사료공급량 조절, 충분한 산소 공급, 질병 예방과 더불어 실시간 수온 체크 등으로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로 인한 양식생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상북도는 이상해황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수층	수온
표층	15.0~16.0℃
5M	10.0~11.0℃
10M	10.0~11.0℃
20M	10.0~11.0℃
30M	10.0~11.0℃
40M	10.0~11.0℃

수온정보서비스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37506 경북 요령시 복곡읍계곡로 111-1 Tel. 054240-0300 Fax. 054242-1941

남궁영기기자



# 창원시,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성료

### 6주간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진행



창원시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14일 의창구 팔용동 근로자복지타운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개강했으며, 지난 21일 비즈니스모델(BM) 경연대회 결과 발표와 수료식을 끝으로 6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발굴·육성과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창업 의지를 제고하고, 창립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설립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기본교육과 사회적경제 창업 심화교육 등 사회적기업 설립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교육으로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추후 사업팀 경영 컨설팅과

후속 지원사업도 이어질 계획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타 지역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시 우선 선발하고, 2021년 사회적경제 기업이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과 2022년 사회적경제 기업이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즈니스모델(BM) 경연대회에서 창원장난감수리팀, 오늘도 빵그레팅, 공감팀, 맘스케어터링팀, 어르신들보미학교팀 등 5개 우수 사회적경제 창업팀이 수상했다.

유재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수료생들이 사회적경제 창업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일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당면과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회적기업 인·지정 지원을 통해 창립형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거창군, 납세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안내서 제작

###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금상식, 슬기로운 취득세 감면생활



거창군은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금상식, 슬기로운 취득세 감면생활'을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취득세 감면 안내서는 입법 취지, 감면조건, 추정규정 등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단순히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추정되는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많은 감면이 신청되고 있는 농업지원에 관한 감면에 대해 수록했으며, 장애인용 자동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감면 후 유의사항을 몰라 감면세액 추징이 잦은 9개 조항을 선별해 활용도

를 높였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이번 감면 안내서를 통해 납세자가 정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이 최소한 법을 몰라서 추정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감면을 직접 신청하는 개인 납세자에게는 감면 안내서를 창구에서 배부하고, 신고 대리인을 통한 감면 신청에도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법무사협회에도 배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정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 산청 한방약초특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과제' 선정경남한방항노화학과 소비자 맞춤형 한방약초산업 육성

산청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청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인 '한방약초특구'와 지역 내 연고산업을 연계·육성해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산청군이 가진 한방약초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를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방약초산업특구'와 연계한 '소비자 중심 맞춤형 한방약초 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국비 5억원에 지방비 5000만원을 매칭해 한해 5억5000만원, 최대 3년 간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인증·마케팅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은 산청군에 소재한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하게 된다.

군과 연구원은 2001년부터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개최, 지난 2005년 지리산 약초연구 발전 특구 지정,

2008년 산청한방약초 산업특구 지정, 2013년 산업특구 대상, 2018년 우수 특구 지정 등 '산청한방약초특구'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꾀한다.

특히 정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리산권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온화한 기후, 적절한 강수량 덕분에 다양한 산약초가 자생하는 약초재배의 최적지라는 사실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방약초 제품과 바이오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역연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산청군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 지원, 디자인 개발·시험분석 인증 지원·마케팅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면 3년간 30개 이상의 지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과 연구원은 수혜기업들이 3년간 매출 증가율이 6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방약초산업 종사 기업과 지역사회가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 사회·문화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청한방약초 특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 한방약초 기업들의 역량을 증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단

단히 해 한방약초산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방약초 산업 종사자 외에도 지역민과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여 한방약초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함안 가야100인 패밀리합창단, 경남도 문화예술사업지원 공모 선정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특화프로그램 '가야100인 패밀리합창단'이 올해 '경남도 소규모 문화예술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소규모 비영리 공익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우수 문화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읍 주민자치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비 7백만 원을 확보하면서 자체경비를 포함, 총 8백만 원의 사업비로 내달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18:30~20:30) 읍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파트별 연습을 실시, 평소 쌓아온 기량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는 '가야읍민 문화마당 축제' 개최,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함안예술제 '아라가야 합창제', '경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제3회 정기 연주회'를 열어 합창단의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염원하는 아



름다운 하모니를 군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읍 주민자치회장이자 합창단장인 김점근 회장은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튿날 가야100인 패밀리합창

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주민자치 합창단으로서 노래를 통해 소통하는 세대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읍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인 '가야100인 패밀리합창단'은 건전한 음악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 정착과 각종 공연 및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97명으로 구성, 지난 2018년 4월 창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 기간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2018 경남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2019 경상남도 신년인사회 초청공연', '2019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장려상' 등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주민자치 예술단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주민은 합창단 또는 가야읍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 부산시,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동참

###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및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부산시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부산시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 세션」에서 국내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오늘(2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장을 비롯해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부산시는 이날 비대면으로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여하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 기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극복을

다짐한 바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선언식으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하고, 기후변화 행동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생활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역이 중심이 되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가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



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

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다.

남궁영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홍보 적극 추진

##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 강조

김순호 군수는 24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정책보험 홍보 및 가입 권장 등 군정 현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농업인들의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25일 개장하는 '구례희망 나눔가게' 참여 독려,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속 등 빈틈없는 군정 활동을 강조했다.

농기계를 많이 다루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작물 또한 자연재난,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 정책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만 15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보

험대상농기계(12종)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모든 농업인들이 정책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이 이뤄지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구례군 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감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24일부터 정상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례군은 타인능력 정신을 계승한 구례희망 나눔가게를 5월 25일에 개장식을 진행하고 6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남출,최상홍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분적산 피톤치드 마시며 암 치유 나선다

광주 남구 관내 재가 암환자와 가족들이 분적산 편백숲에서 암 극복 의지를 다지고, 가족 구성원간 삶의 희망을 다지는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분적산 편백숲에서 '제2회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연으로 떠나는 숲 체험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각각의 환자 및 가족간 정보 교류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정에서 암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 20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분적산 편백숲을 걸으며 그동안 쌓여왔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털어내고, 정자에 앉아 디퓨저를 만들면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재가 암 환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암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의 동기 부여 및 활력 증진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관내 재가 암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상



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문보건 사업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내 의료기관과 종교단체 등 협력기관과 연계한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 보성군, 세계차엑스포 비전 선포... 보성차 메디푸드로 키운다

## 보성라이브커머스 녹차베개, 녹차비누 등 "완판 행진"

보성군은 지난 22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2022년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선포식에서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기점으로 인류와 미래에 희망이 되는 메디푸드와 웰스케이 산업으로 새로운 보성차 천년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보성 차산업 비전을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2022년에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의 주제인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과 지금까지 식음료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보성 차 산업을 메디푸드 산업으로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보성군의 포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선포식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으며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과 보성라이브커머스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됐다.

선포식 이외에도 미리 엑스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엑스포 체험(블렌딩차 만들기, 차밭피크닉, 뇌원차만들기, 녹차죽먹), 보성 녹차 명인이 펼치는 제다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되어 랜선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함께 진행된 보성라이브 커머스 행사에서는 녹차베개, 녹차비누 등이 완판되며, 3천2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보성군은 자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매달 넷째 주 토요일(15:00~17:00) 농가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성녹차와 지역 농특산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다음 일정은 6월 26일이다.

김영안기자



# COP28 유치도시 여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격화

## 숲으로 치유되는 여수, 도심 속 치유공간 7ha 조성



여수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선 폐철도 및 울촌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 숲 7ha를 조성한다.

여수시는 산림청으로부터 35억 원 등을 지원받아 총 70억 원을 투입해 전라선 폐철도 울촌조화공원 2km 구간 2ha와 울촌산업단지 4.6ha,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0.4ha 일대에 가시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28종 4만 440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5.7g으로 경유차 1

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차단 숲을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Zero 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1천ha 나무 식재 등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30억 원을 들여 철도폐선부지인 덕양 양지바들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도심 속 수목원과 같은 치유공간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5일 정식 개관

## 9시 30분부터 운영...전시교육시설, 야외체험시설 등 교육체험공간 기대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5일 개관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 21일 개관식을 개최했고, 그 날부터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직원 중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식 개관일을 25일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총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자원관은 부지면적 9만 4,116㎡에 건축연면적 1만721㎡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350만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체험실, 해양생물·포유류 등 500여종 1,000여점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 등도 조성돼 있어 교육체험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가운데 입장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이며 단체는 50%를 감면한다. 목포시민은 50%, 그린카드소지자는 본인 30%, 다자녀가정은 전원 50% 할인된다. 만 4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포함 보호인 1인, 국가 독립유공자, 자원관 회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기자



# 진도군, 톳·김·모자반 등 맞춤형 면허 양식장 479ha 승인

진도군이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해역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면허 양식장 479ha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이번에 승인된 어장은 김, 모자반, 톳 등 해조류 양식장 등이며, 올해 7월초부터 내년 6월말까지 양식업과 어업 면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어장 이용개발은 적지 조사를 거쳐 어장 관리 조건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해역의 대체 개발을 희망하는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 유형별로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 15건, 194ha, 기존 어장을 생산성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해 대체 개발하는 8건, 285ha 등이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의 이설 대체개발 등 어장의 종합적 이용 관리를 위한 면허양식장과 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 등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어업소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허 양식장 확보와 현장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 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2021년 농촌재능나눔사업 본격시행

### 정우면 대정마을 등 8개 농촌 마을에 의료·복지·문화서비스 제공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재능나눔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대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 지역 균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주민건강 보건과 복지증진, 마을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전북과학대학교 11개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약 150여 명이 참여한다.

5월부터 11월까지 농촌 지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복지·문화 등 다양한 재능나눔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만성질환 조기 예방 △구강건강 관리 △시력검사 및 근용 안경 증정 △어르신 영양식단 개발 △이·미용 봉사 △행복사진 촬영 △실내환경 꾸미기 △도

자기 문패 제작 △다문화가족 동행 프로그램 △장애인·아동 대상 놀이 지원 △스마트폰 활용 교육 △마을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련해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지난 10일과 13일, 정우면 대정마을과 태인면 원거산마을, 옹동면 매당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구강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코로나19 감염 병확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재능나눔사업'은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2013년부터



9년째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는 농립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 가져...

군산시는 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1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2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심층평가를 통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성현 ▲㈜퓨코다.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성현은 두산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1차 협력업체로 신재생 발전·환경 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전문업체이며,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퓨코다는 세정제, 방한제 등 생활용품을 제조 생산한 전문기업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유럽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의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K-주사기로 널리 알려진 ㈜퓨코다와 마태를 비롯해 총 17개사가 선정됐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기술혁신,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 지역의 연구기관과 R&D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 기술사에도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매출액과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8.2%, 2%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망 강소기업은 각각 12%, 10.6%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제이아이테크, ㈜이삭특장차 등 5개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시설을 재투자하는 등 군산경제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성장 협력 방안 등을 상호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광일 (주)카라 대표는 "도장지그 보관함 공정개선과 시험분석 테스트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오수복 수립산업(주) 대표는 "근로자



출퇴근 버스 및 숙소 지원, 조산·자동차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경제상황에 군산 산업계가

꾸뚝하게 버틸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유망 강소기업이다.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 익산시, 지구 환경 지키는 '탄소중립 동참' 선언

### 기후변화 늦추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동참



익산시가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과 손을 잡고 '2050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했다.

시는 24일 한정에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지자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P4G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은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

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가인 IPCC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현을 시장은 "태양에너지와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며 "실생활의 경우 1회용품 사용자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 세종시 행정과 혁신, 같이 공부해요

정책아카데미 '행정·혁신', 6.8.~7.27. 화요일마다 유튜브 생중계

**2021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책아카데미**  
**행정·혁신**  
 6. 08 ~ 7. 27  
 매주 화요일 16:00~18:00  
 대면 세종시청 4층 여민실 50명 | 비대면 유튜브(세종e채널, 세종알리미)

**6. 08.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6. 15.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6. 22.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6. 29.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7. 06.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7. 13.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7. 20.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7. 27. (수)**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학점인정 강좌 명예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강좌

수강신청 필수 → 6회 이상 수강 → 16시간 인정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필수강좌 포함 100시간 이수  
 → 세종특별자치시인재개발교육진흥원 이사장(시장) 명의 명예학위(인명학사) 취득 가능

✓ 수강신청 [www.sjhle.or.kr](http://www.sjhle.or.kr) / 5. 24 ~ 6. 06까지 / ☎044-865-9678

※ 교육일정 및 방법 등 세종특별자치시인재개발교육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시청 청년 행정인턴 모집 시, 정책아카데미 6회 이상 참여자는 우선선발 진행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 인사(인재개발부)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행정·혁신'을 주제로 정책아카데미 강의를 연다.

세종시인재개발교육진흥원(원장 박영숙)이 운영하는 정책아카데미 '행정·혁신'은 한국행정연구원과 연계한 강연을 포함해 총 8강으로 구성돼 시청 여민실 현장강의와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운영한다.

6월 8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시민정치토크'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 15일은 김진 한국행정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사제로 살피보는 적극행정', 22일은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마인드 제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9일에는 '섬김 리더십으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구수환 이사장(이태석재단)의 '시민의 날' 기념 특강이 열린다.

7월 6일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행정의 변화와 혁신, 주민 안에 담

이 있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13일은 손지민 법제처 행정사무관이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20일은 강보성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이 '정책홍보, 지금은 온라인 시대'를 주제로 현장 중심의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27일은 '숫자가 말을 하게 하자, 데이터로 혁신하기'를 주제로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특강이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개발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6월 6일까지 가능하며, 대면(여민실)과 비대면(유튜브) 수강신청이 별도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여민실) 수강신청은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준희 시장은 "행정·혁신이라는 주제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나눌 수 있는 강연으로 구성해 보았다"며 "유튜브로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니 특별 강연이 포함된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홍성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홍성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으로, 비상상황일 경우 충격을 가하여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량칸막이 설치를 시작으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나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불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에서는 불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에 위치를 숙지해 두고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산하 강원광역새일센터, '오픈마켓 여성 셀러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도내 예비(초기)창업 여성들의 소자본, 무점포 창업지원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강원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는 2021년 강원도 「오픈마켓 여성 셀러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오픈마켓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초기)창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창업 의지 및 창업 목표의 구체성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총 20명을 선정해 창업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오픈마켓 여성 셀러 양성교육」은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도내 예비창업 여성들의 소자본 무점포 창업지원과 창업 초기 여성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소자본, 무점포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3주)이며 주 3일(수~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픈마켓 창업 8일 속성과정으로 진행되고, 교육 장소는 강원디자인진흥원(춘천시 소재)이다.

주요 커리큘럼은 오픈마켓 여성 셀러 양성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전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물 판매전략, 동영상 제작 및 편집마케팅 전략, 키워드광고 및 쇼핑검색광고 실습 등이다.

참가신청서 등 서류는 6월 24일 18시까지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광역새일센터에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오픈마켓(온라인상) 관련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여성들이 창업의 꿈에 성취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보령시, 올해 284억원 투입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

2023년까지 원산도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비

보령시가 올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84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합류수 관거를 분류수 관거로 전환하는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악취문제와 시민의 분노처리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주요·주요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6개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며, 흑포·사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4개 신규사업에 24억 원을 들여 시설계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국도77호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증가될 원산도 거주민과 관광객을 대비해 2023년까지 원산도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비를 목표로 총사업비 262억 원 중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원산도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역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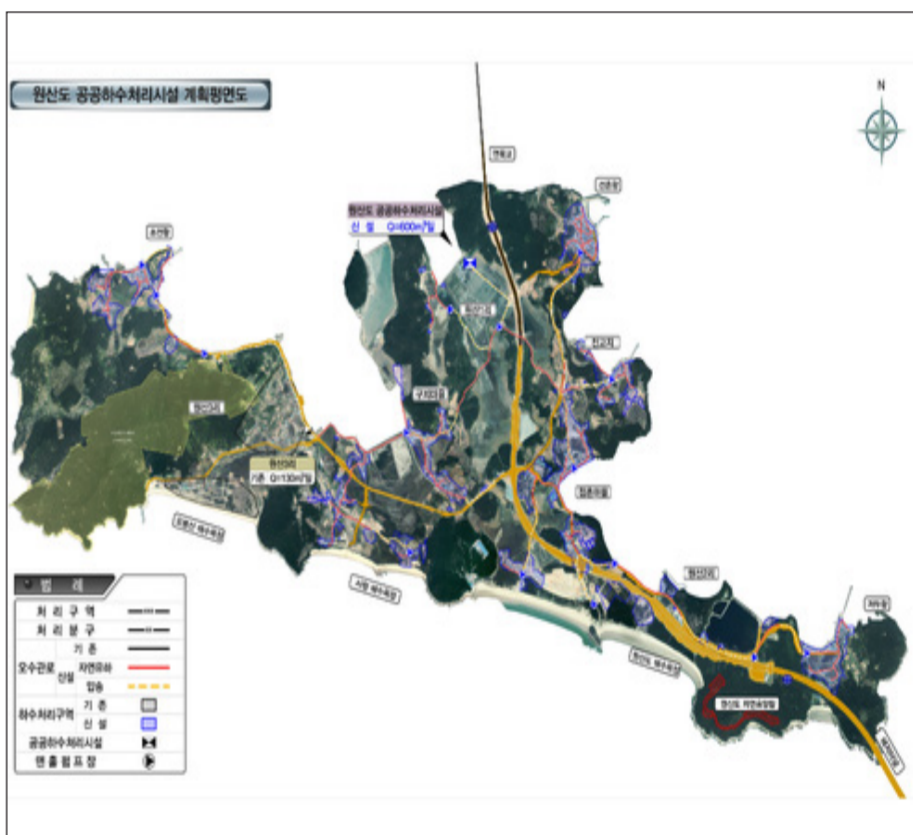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322km 내부에 대한 CCTV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파손·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한다.

그 외 신대3리 하수관거 정비 등 11개 소규모 사업에도 27억 원을 투입해 시급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해 보령하수처리장에서 수질 개선한 재이용수를 1일 1만톤 생산하여 공업용수(탈황용수)로 한국중부발전전에 공급함으로써 가뭄대비 보령댐 상수원수 확보에도 기여한다.

김동일 시장은 "하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서해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원산도 전역을 포함해 관내 하수도 보급률을 78.2%까지 높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대전 서구·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도시회복력 강화 업무 협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회복력과 마을공동체에 달렸다!!

대전 서구는 지난 21일 청사 감천누리실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도시회복력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도시 관련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간 각종 세미나 포럼 개최 ▲ 마을활동가 간의 네트워킹 사업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공동 연구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기로 했다.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하며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협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기록 회장은 "유엔해비타트가 가지고 있는 도시 발전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서구는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서구의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협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 시기 도시의 마을공동체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재난과 같은 도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유엔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서 서구가 전국에서 도시회복력이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해비타트는 UN 산하에서 인간 정주와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1976년 설립되었다. 한국위원회는 2019년에 출범해 주거·인프라·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 국립세종수목원 제2기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 발대식 및 팸투어 개최

## 수목원·정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제2기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 발대식 및 팸투어를 소속기관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2일 개최하였다.

제2기 국민기자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20~60대의 다양한 연령·지역·직업을 가진 20명이 선발되었으며,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림, 수목원·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수목원관리원 공식 네이버블로그에 업로드되며, 수목원 및 정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에 활용된다.

발대식에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및 기자단 활동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립세종수목원 팸투어에서는 '물빛따라 풀빛따라' 교육해설프로그램 체험과 함께 사진에 주어진 팸투어 미션 취재의 시간을 가졌다.

금일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단 및 관계자 발열체크, 실내 안전거리 유지, 방역 담당자 지정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이 기후변화 인식 제고, 수목원·정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며,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수목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국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담양소방서, 신규직원 임명장 수여식 가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24일 소방서장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8명에게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략하게 진행되었으며, 신규직원 8명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주동안 차량 및 장비조작훈련, 안전사고 예방교육, 행정업무서류 작성 및 소양교육 등 분야별 실습교육을 받은 후 현장대응부서에 배치되어 담양·곡성 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담양소방서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활력 넘치고, 근무하고 싶은 소방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노루목지대 발대식

## 산본1동 치안 취약지 등 평일 야간 순찰

군포시 산본1동의 치안을 도와줄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노루목지대가 발족했다.

군포시 산본1동은 지난 5월 21일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노루목공원에서 한대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범기동순찰연합대 노루목지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대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루목지대가 다시 활동하게 돼 산본1동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80명으로 구성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노루목지대는 앞으로 평일 야간에 급정역 먹자골목과 차이나거리, 산본시장, 공원 등 치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등 범죄예방에 나서게 된다.

특히 범죄현장이나 범죄의혹자 발견 시 즉각 112에 신고, 청소년 선도와 보호, 미야나 가출인 발견 시 일시 보호



후 경찰에 인계, 무질서 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 영양군 자원봉사자, 산나물 나눔 위해 일월산을 누비다

## 자원봉사자가 채취한 산나물을 관내 취약계층에 기부

영양군은 관내 주민들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 50여 명과 함께 5월 22일 일월산 정상 산나물 채취체험장에서 이웃사랑을 위한 '영양산나물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일월산 정상에서 자라 독특한 향기와 뛰어난 맛이 특징인 영양산나물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채취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데 있다. 매년 일월산 정상 군유 체험장에서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산나물 채취체험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이를 자원봉사자에게 개방하여 영양산나물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더불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일월산 체험장에서 간단한 채취체험 교육과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흠뻑 땀 흘려 산나물 채취에 열을 올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



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열심히 채취하여 기부한 산나물은 약 150kg 정도로, 이는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버봉사단을 투입하여 선별작업과 포장을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부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주어 감사드리며,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국립세종수목원 제2기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 발대식 및 팸투어 개최

## 수목원·정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제2기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 발대식 및 팸투어를 소속기관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2일 개최하였다.

제2기 국민기자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20~60대의 다양한 연령·지역·직업을 가진 20명이 선발되었으며,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림, 수목원·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수목원관리원 공식 네이버블로그에 업로드되며, 수목원 및 정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에 활용된다.

발대식에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및 기자단 활동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립세종수목원 팸투어에서는 '물빛따라 풀빛따라' 교육해설프로그램 체험과 함께 사진에 주어진 팸투어 미션 취재의 시간을 가졌다.

금일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단 및 관계자 발열체크, 실내 안전거리 유지, 방역 담당자 지정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민기자단이 기후변화 인식 제고, 수목원·정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며,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수목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국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시소센터 자원봉사 동아리 '다람즈'의 특별한 외출, 5.18 역사 현장 속으로

5월 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의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동아리 다람즈가 옛 전남도청 앞에 섰다. 사진에 5.18 민주항쟁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역사 해설을 신청하여 오월여성역사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적지 탐방을 진행했다.

다람즈는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추념행사 '일곱 번째 봄'을 기획하여 마을의 어른, 아동청소년들과 나눔 활동을 하였으며, 이번 5월에는 청소년들이 5.18 민주항쟁을 좀 더 쉽고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적지 탐방,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와 뮤지컬 소개, 민주주의 십자말풀이, 숨은그림찾기, 5.18과 닮은 꼴 미안마의 민주 항쟁 등의 내용을 풀어 신문을 제작하여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람즈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 신문을 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SNS 시대이지만 1980년대의 이야기를 담은 만큼 가장 오래된 미디어 중 하나인 신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문 접한 적이 별로 없어서 만들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 민주항쟁의 역사를 바로 잡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소감을 말하였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다람즈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2기와 3기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매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정해 연관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다람즈가 만든 오월 신문 '우리들은 기억한다'는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김덕윤/기자

# 대전시, 대전시립교향악단 챔버시리즈2 ‘목관 앙상블의 선율’

‘섬세한 숨결로 만들어내는 목관 악기의 하모니’

대전시립교향악단은 5월 27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챔버시리즈 2 목관 앙상블의 선율’을 연주한다.

소규모 실내악 연주로 연주자의 손끝까지 볼 수 있는 세밀함과 심도 있는 음악 세계를 선사하여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챔버시리즈 올해 2번째 연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루티스트 조성현이 객원리더로 나선다.

조성현은 한국인 최초로 독일 명문 쾰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하고 연세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어 화제가 되었다. 또, 아일랜드 신문에서 “불공평할 정도의 톤컬리티로 최고로 깨끗하고 훌륭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연주자”라고 찬사를 받았다.

이번 연주는 그동안 자주 연주하지 않았던 신선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였다. 연주회의 서막을 여는 곡은 ‘파리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던 드비엔느의 유머러스함을 생생히 담아낸 〈트리오 내림 나장조, 작품 61, 제5번〉이다.

실내악의 특징은 관객의 즐거움 못지않게 연주자들의 즐거움이 크다는 것인데, 이 곡에서도 플루트와 클라리

넷, 바순은 마치 오페라에서 대화하듯이 멜로디를 이어나간다.

이어지는 곡은 단치의 ‘목관 5중주 내림 나장조, 작품 56, 제1번’이다. 낭만 시대 본격적인 목관 5중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작품은 밝고 가벼운 짧은 선율이 플루트를 중심으로 악기 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시작되어 유쾌하게 전개된다.

다음 곡은 여름을 향해 경쾌하게 전진하는 정열적인 춤과 같은 분위기의 타파넬의 ‘목관 5중주 사단조’이다. 이 작품은 연주자의 고도로 훈련된 테크닉, 감성적인 주제 선율과 농도 짙은 음악적 분위기, 그리고 유기적인 앙상블이 그 특징으로, 후기 낭만주의 실내악의 요소가 잘 드러나 있다.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스포어의 ‘9중주 바장조, 작품 31’이다. 목관 5중주(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와 현악 4중주(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로 구성되어 흔히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목관 파트에서 주선율을 연주하고 현악 파트에서 반주를 맡는 형식의 이 곡은 악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 각 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고정화기자



# 부산시립무용단 제83회 정기공연 ‘춤, 본색’

‘춤의 가치,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2021. 5. 27목 - 28금 2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이정윤)은 제83회 정기공연 ‘춤, 본색’을 5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2021년 부산시립무용단의 신작 레퍼토리 공연으로 한국춤 전용극장으로 정형화한 무대와 미술, 부산시립관현악단과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협연을 통해 완성되어 관객을 압도할 것이다.

연출가가 창안한 한국춤 전용극장으로 정형화한 무대와 미술,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판소리적벽가를 재해석한 작창 한승식·정상희, 음악감독 김태영,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와 음악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협연을 통해 완성되어 관객을 압도할 것이다.

춤 〈본색〉은 춤과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공공예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그런 차원에서 춤 본색은 춤 본연의 아름다움, 춤의 가치에 집중하여 만들어졌다. ‘한국춤, 본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춤의 가치를 높이는 공연으로 부산 공연예술계와 문화지성계에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본색〉을 각인 시키는 공연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산시민들과 공연장에서 직접 볼 수 있기를 염원하며 나아가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딛기를 기원하는 공연이 되고자 한다. 예매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와 전화예매(051-607-6000)에서 가능하며 티켓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피어 없기를 시행합니다.)

전승희기자

# 울산암각화박물관, 작은전시 ‘큰보 호랑이 시절 마을 사람들’ 개최

대곡리 암각화 중심 1960년대 반구마을 사람들의 삶 조명

울산암각화박물관은 2021년 작은전시 ‘큰보 호랑이 시절 마을 사람들’을 5월 25일(화)부터 8월 22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작은전시는 대곡리 암각화(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으로 1960년대 반구마을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대곡리 암각화가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인 1960년대 반구마을 사람들은 암각화를 ‘큰보 호랑이 그림’, ‘이상한 그림’ 등으로 불렀으며, 그 주변은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는 일터이자 물놀이하고 스케이트를 타는 놀이터였고 대곡리 암각화의 동쪽 편으로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 의례 공간이기도 했다.

전시 내용은 ▲제1부 ‘마을과 관심’ ▲제2부 ‘큰보 호랑이 시절 대곡리 암각화’로 구성된다.

제1부 ‘마을과 관심’에서는 반구마을의 명칭, 지형, 마을 경계, 인구, 지도 등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며, 마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현된 대곡리 일대 마을지도를 통해 1960년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다.

▲제2부 ‘큰보 호랑이 시절 대곡리 암각화’에서는 대곡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1960년대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우리는 그간 대곡리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바위에 새겨진 다양한 그림과 이를 새긴 선사인들의 자취에만 집중해 왔다.”며 “1960년대 암각화 주변 풍경을 다루는 이번 전시를 통해 대곡리 암각화를 새롭게 만나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강원도 MZ세대의 일상을 보여주는 박영조, 정언호 작가의 ‘Inside Out’展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디자이너 지원전시로 청년 디자이너 정언호, 박영조의 ‘Inside Out’展을 5월 25일(화)부터 6월 20일까지 진흥원 제3, 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두 청년 디자이너는 ‘Inside Out’이라는 주제로 MZ세대가 공감할 만한 내면의 상념과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을 디지털 일러스트를 통해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두 청년디자이너의 디지털 일러스트 작품 60점과 일러스트를 활용한 굿즈로 구성된다.

박영조 작가는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쉐덱스웍스 디자인을 거쳐 현재 멜라카스튜디오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주로 평범한 싱글남의 내면과 일상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정언호 작가는 영월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 네이버 그래픽으로 창작 지원작가로 선정되었으며, KT&G 상상마당, 삼성, 나이키 등의 브랜드와 협업하였다. 그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서핑과 캠핑을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두 디자이너는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 점점 뒤로 미루어지기만 하는 ‘나를 위한 취미생활’들을 떠올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시를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전시로 강원도의 우수한 청년디자이너를 알리는 한편 기업과 디자이너의 연결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디자이너 역할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등원기자



# 新초현실주의 - 문선미 초대전, 서산창작예술촌에서 열려

서산시 주관, 서산문화재단의 주최로 서산창작예술촌에서 6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문선미 서양화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요 근래 서산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핫’한 작가 중 한명인 문선미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세기 초현실주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같은 느낌을 준다. 엘리스의 기나긴 여정을 관조하는 엑스트라, 세상의 모든 일에 무관심한 듯, 통달한 듯, 지친 듯, 냉정한 듯, 몽롱한 듯 여러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물상이 아니다.

이번 서산창작예술촌에서 진행되는 문선미 작가의 초대전 imagining展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자로서의 자신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웃음 띤 유익적 언어나 시의성 있는 전향적인 인물상이 아니다.

문선미 작가는 성신여자대학교 서



양화과를 졸업하고, 10여 회의 개인전과 50여 회의 단체전 등에 참여하였다. 문선미 초대전imagining展은 6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표작 ‘I am beautiful’의 15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오픈식은 진행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체온 점검 등 방역지침 준수 아래 진행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 광고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고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 내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고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고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고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 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고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고신도시는 2022년 특례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

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고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



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역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고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고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고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최광수/기자

# 경남 청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위해 머리 맞대

### 교통, 경제, 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 쏟아내



경상남도는 22일 경남도민의 집에서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부울경 메가시티팀 22명과 도와 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제안 발표와 경남도 장영욱 동남권 전략기획과장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 발표,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청년과 함께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방안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행정·경제·교통·관광의 4가지 분야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부울경 광역특례연합 의회에 명예청년위원제를 도입하여 메가시티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울경이 협력할 것 ▲차가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철도망을 확충하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지원해 주는 것 ▲부울경 광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지와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며 청년 관광스포터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신상훈 도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전 도민이 함께 추진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부울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장영욱 경상남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불과 4~5년 전만 해도 도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2~30

대 청년이 3~4천 명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1만 8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음을 되새기며,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하여 부울경을 수도권에 못지 않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즐길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이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에 많은 기대를 보였으며, 향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도내 청년들로 구성되어, 교육·기후위기·마을공동체 등 분야를 나누어 정기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며 경상남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여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보여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힘입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라이브 커머스

###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도전

광주광역시 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양동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판로 개척에 발을 뺀고 나섰다.

바로, 오는 26일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여 수산물 꾸러미를 비롯한 반찬세트와 건어물 등 양동전통시장 대표 우수제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비접촉 경제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서구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양동전통시장 상권관리기구에서 주관한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판매 문화를 전통시장에 접목한 온라인 마켓을 적극 도입하여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고객 유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라이브 커머스의 확대와 공공배달업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유통방식을 도입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고, 특화상품 개발과 해점포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 부산시, 금속소재 대체 친환경 선박 소재 산업 육성 추진

#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 국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외 친환경 선박 기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 요소중 하나인 선박 경량화를 통한 운항효율 향상이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부산 첨단소재산업 육성전략(2020~2025)'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재를 고도화하기 위한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끝에 정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이번 5월 국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 기술 수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6억원(국 60, 시



26)을 투입, 조선해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존 금속소재의 부품을 경량·고성능 소재를 적용한 부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술 혁신형 상용화 시제품 제작 패키지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체험형 조선해양 소재 라이브러리 구축, 한국형 경량소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미래 기술 수요에 선제적 대응과 조선해양 첨단소재 분야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첨단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규제를 대응하고 부산이 첨단소재 중심도시로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

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